

전통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락 · 김세천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각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장만을 거듭해온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답습이라도 하듯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도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아 투여된 재화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각 도시마다의 어려움이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브랜드 도시, 전통문화 도시, 디자인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살려내는 조건을 구현해내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러올 수 있다. 도시는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가 있다. 따라서 그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 또한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많은 도시들이 지향하고 주창하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전통의 의미와 전통의 적용방법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전통에 대한 정체성 평가로 민족문화 상징조사를 통한 빈도 조사 및 수량화 3류조사¹⁾를 통해 전통에 대한 정체성 요인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0대 이상 성인 50명과 내국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13일~6월 27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98명이다.

2. 조사샘플 선정

민족문화 상징 100선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문화를 ‘한



그림 1. 민족문화 상징 100선 이미지

(韓)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민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간적, 시간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문화유전자(DNA)를 선정하였다. 민족문화 상징 100선은 2005년 2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고려청자,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같이 대표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길거리 응원, 자장면, 정보통신(IT)과 같은 현대 문화, 또한 비무장지대, 평양, 백두산처럼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상징까지 담고 있다.

특히, 문화상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서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나 지자체의 특산물 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에 대한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민족문화 상징	조사(속성분류)
전통/역사(전자계열 : 후자계열)	생(유/무)(살아 있는 것 : 죽은 것)
국외 유산사재(유사사재(有) : 유사사재(無))	기대효과(기대효과(有) : 기대효과(無))
활용방안(활용방안(有) : 활용방안(無))	

그림 2. 민족문화 상징 100선 조사(속성분류)

100대 문화상징 목록은 민족(2개), 강역과 자연(19개), 역사(17개), 사회와 생활(34개), 신앙과 사고(9개), 언어와 예술(19개) 등 6개 분야와 각 분야에 민족, 강역, 경관, 인물, 경제, 의식주, 불교, 언어, 연희 등의 26개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전통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 항목 분류 방법은 민족문화상징 100선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징물의 특성과 전망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하였다. 평가항목은 전통과 역사 내용에 대해 자연물과 동·식물 등 민족적 역사와 함께 시작한 것과 자장면, 비무장지대 등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역사적으로 후반부에 등장한 항목을 바탕으로 '전자계열/후자계열'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역사, 생물/무생물, 보물(유/무), 활용방안, 국외사례, 기대효과, 단순/복잡, 디자인 응용성, 문화의 독창성, 문화적 상징성, 세계화 가능성, 선호도의 카테고리 항목의 키워드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적용방법은 각 샘플에 대해 분류된 데이터의 유무를 조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여 "0/1" 형식의 정량화 데이터로 변환하여 아이템과 카테고리의 연속 변수의 반응 수에 대한 차트를 작성하여 도표를 만들고 수량화 1류(Quantification theory type 1) 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민족문화상징 조사 결과-한국인

민족 문화 상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량화 1류(Quantification theory type 1)를 이용하여 카테고리 수량과 샘플 스코어의 좌표로 분류하였다. 좌표에 대한 분류는 제1축(X축)과 제2축(Y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포도를 만들어 각 축의 의미를 설정하였다.

X축의 정(+)-방향은 디자인의 독창성(우수), 세계화 가능성(높음) 등으로 전통에 대한 "우수한 전통"축의 의미로 정하였다. X축의 부(-)방향은 디자인의 독창성(보통), 문화적 상징성(보통) 등의 "일반적 전통"축으로 정하였다.

Y축의 정(+)-방향은 기대효과(無), 국외 유사사례(無) 등으로 "한정된 전통"으로 정하였다. Y축의 부(-)방향은 살아 있는 것, 국외 유사사례(有) 등으로 "연속적 전통"축의 의미로 정리하였다.

이것을 X축 정(+)-방향의 "우수한 전통"축을 중심으로 전자계열과 후자계열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자계열의 항목에 근접한 항목으로 국가보물, 단순형태, 죽은 것 등이 있다. 후자계열에는 살아 있는 것, 국내유사사례(有), 국가보물(無) 등이 근접해 있다. 이것을 한국인의 경우 우수한 전통의 축을 중심으로 전자계열과 후자계열의 위치와의 거리를 살펴보면 전자계열과 근접 항목들이 후자계열 항목과 근접한 내용보다 더 우수한 전통 축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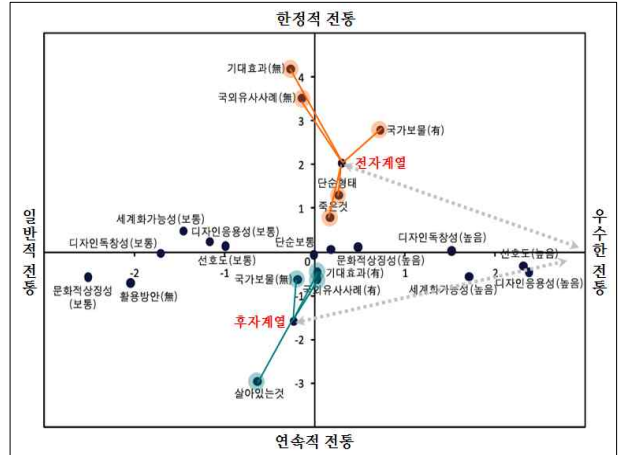


그림 3. 제1축과 제2축으로 구성된 속성수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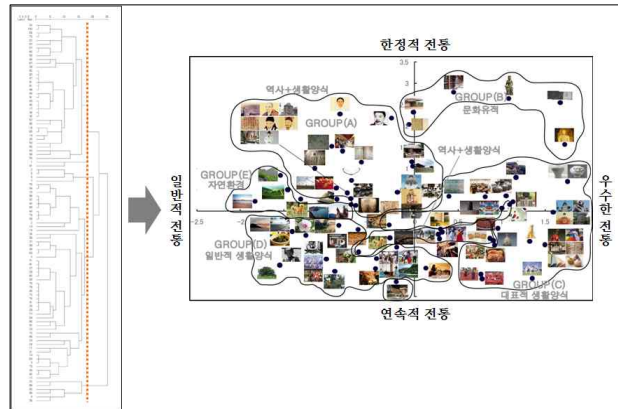


그림 4. 클러스터 조사에 의한 그룹별 샘플 분포도

2. 클러스터 조사 결과-한국인

민족 문화 상징 100선에 제시된 샘플을 중심으로 샘플에 대한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시된 100개 샘플에 대한 동질그룹은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민족문화상징 조사-한국인

위의 분류된 각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면 Group A의 샘플은 "역사+생활양식의 그룹"으로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가 많은 그룹이다. Group B는 "문화유적의 그룹"으로 역사적 유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Group C는 "대표적 생활양식"으로 한복, 한지, 태극기, 이순신, 세종대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문화가 위치하고 있다. Group D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Group E는 "산과 바다, 백두산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5개의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문화가 위치하고 있는 Group D의 샘플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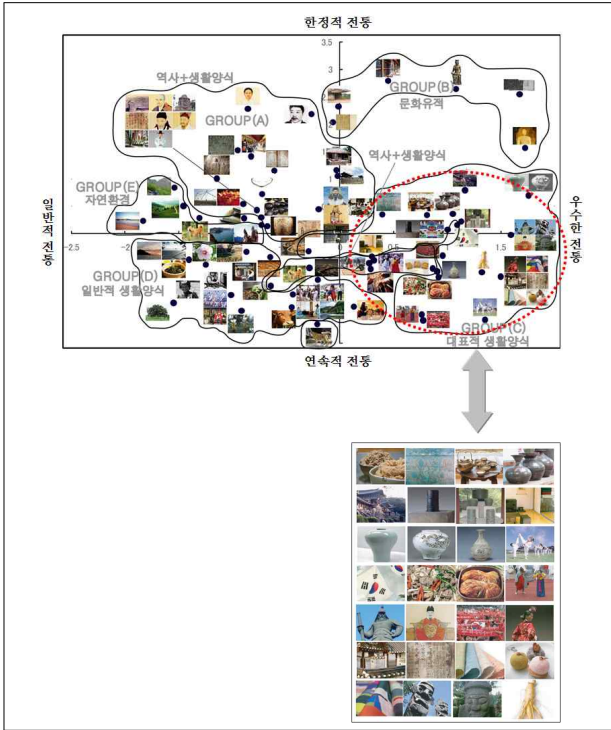


그림 4. 클러스터 조사에 의한 그룹별 결과 분포도

4. 민족문화상징 조사 결과-외국인

민족문화상징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량화 1류(Quantification theory type 1)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앞쪽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상징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코딩데이터를 제1축(X축)과 제2축(Y축)을 이용하여 산포도를 만들어 각 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민족문화상징에 대한 외국인의 경우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X축의 정(+)방향을 “우수한 전통”축, X축의 부(-)방향을 “일반적 전통”축, Y축의 정(+)방향을 “한정된 전통”축, Y축의 부(-)방향을 “연속적 전통 축”의 의미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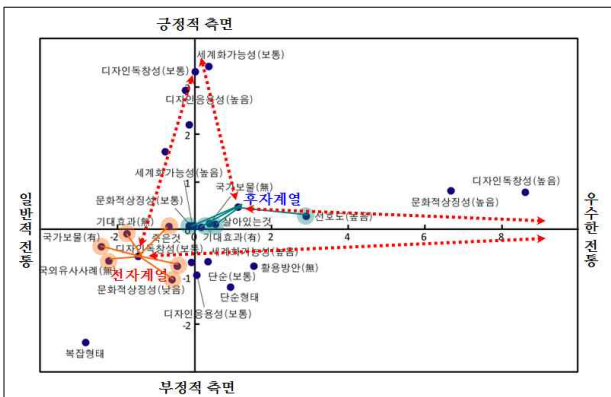


그림 5. 제 1 축과 제 2 축으로 구성된 속성수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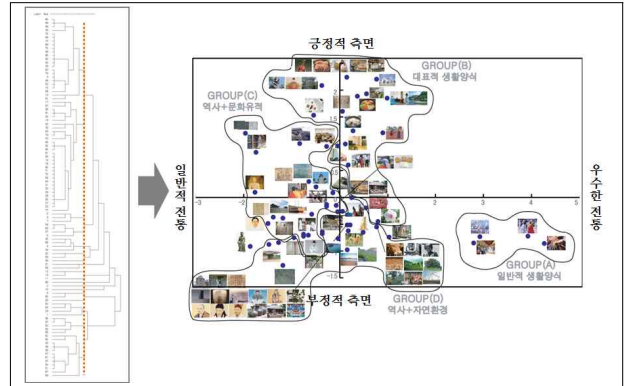


그림 6. 클러스터 조사에 의한 그룹별 샘플 분포도

이것을 X축의 정(+)방향의 “우수한 전통”축을 중심으로 전자계열과 후자계열 항목 살펴보면 전자계열의 항목에 근접한 것으로 국가보물(有), 국외유사사례(無), 죽은 것, 디자인 독창성(보통) 등이 위치하고 있다. 후자계열에는 국가보물(有), 살아 있는 것, 기대효과(有), 국가보물(無) 등이 근접하고 있다. 이것을 한국인의 조사결과와 같이 우수한 전통의 축으로 전자계열과 후자계열의 위치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반대로 전자계열보다 후자계열이 더 우수한 한국전통에 근접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수한 전통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생각이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클러스터 조사 결과-외국인

민족문화상징 100선에 제시된 샘플을 중심으로 제시된 100개 샘플에 대한 외국인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동질 그룹을 조사할 결과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6. 민족문화상징 조사-외국인

위의 분류된 각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면 Group A의 샘플은 일반적 생활양식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룹, Group B는 대표적인 생활양식으로 한복, 한지 태극기, 이순신, 세종대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문화가 위치하고 있다.

Group C는 역사+문화유적 그룹으로 문화유적으로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샘플, Group D는 역사+자연환경으로 자연환경과 역사적 인물, 문화유적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분의 그룹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4개의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문화가 위치하고 있는 Group B의 샘플을 추출하였고, 샘플 산포도 X축의 부(-)방향인 우수한 전통 축에 근접한 Group A의 일반적 생활양식에 위치한 4개의 샘플을 통합하여 한국인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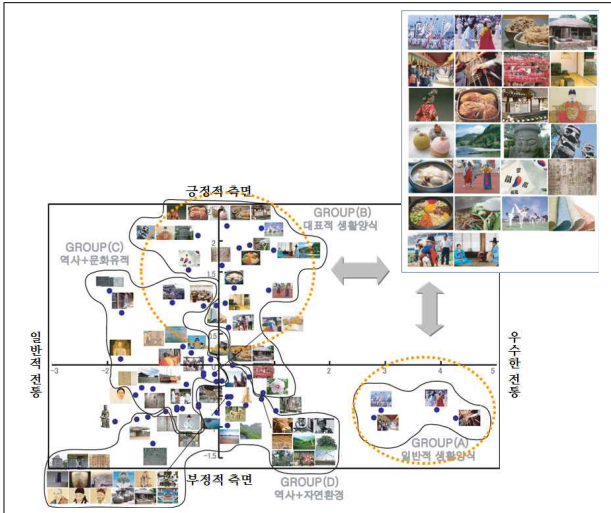


그림 7. 클러스터 조사에 의한 그룹별 결과 조사도

7. 민족문화 상징 결과 해석

민족 문화 상징 100선을 중심으로 앞에서 조사된 한국인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샘플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민족 문화 상징 100선 중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샘플(14개)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샘플(14개)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우수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은 동일하다. 반대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우수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 중 불일치하는 샘플은 한국인(11개), 외국인(10개) 등으로 한국인(44.8%), 외국인(40.8%)가 불일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불일치하는 샘플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이 대표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들은 도자기, 불국사, 이순신 등 전자계열에 속하는 역사적 유물이 많았다. 외국인이 대표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



그림 8. 한국인-외국인 결과 조사도



그림 9. 현재 적용되는 전통적 디자인이 범위



그림 10. 현재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 디자인이 범위

플들은 전통놀이와 음악, 음식 등으로 과거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IV. 결론

조사된 한국인과 외국인의 한국적 전통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은 역사+문화유적을 외국인은 생활양식에 관련된 전통을 한국적인 전통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외국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의 관심과 평가가 높은 것으로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현재 전통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한국적(전통적) 디자인의 사례들은 대부분 전통 문양과 조형의 적용에 있어서 한옥, 도자기, 부채 등 전자계열의 범주(변하지 않는 것, 죽은 것, 형식)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은 후자계열(새로운 것, 살아있는 것, 내용, 의식 등)과 관련된 전통의 접근방식으로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의 적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전통을 지역정체성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적용된 전자계열의 전통 이외에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후자계열의 도입으로 전주시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요약해보면 전통의 지역정체성은 지금까지 한국적 전통의 접근방식인 전자계열의 스타일 위주의 전통인 형태미(form aesthetic)와 앞으로 적용이 필요한 내용과 의식적인 후자계열의 내용미(content aesthetic)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형태미(form aesthetic)와 내용미(content aesthetic)를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 1. 수량화 3류조사는 질적 데이터를 사용한 인자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체(샘플)의 다양한 속성수준의 반응패턴에 근거하여 개체와 속성수준의 쌍방을 수량화하여 유사한 개체와 속성수준을 도식화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주 2. 출처: www.minjok.mct.go.kr